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악랄성

정 진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모든 과학, 교육, 문화 기관들을 독점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전통, 민족어, 민족적 자각과 긍지를 말살하려 하였던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93페이지)

일제는 조선강점 전기간 교육분야에서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깡그리 말살하고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데를 총적목표로 삼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조선강점시기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노예교육책동의 악랄성은 무엇보다먼저 민족교육기관들을 폐쇄말살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군사적강권의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실현한 즉시 조선에서의 교육이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초기부터 민족교육의 기본거점이었던 사립학교들을 대대적으로 폐쇄한데서 나타났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은 각지에 사립학교들을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민족교육과 반일교육을 실시하고있었다.

일제는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영향밑에 반일적이고 민족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실시하고있던 사립학교들을 반일독립운동의 《온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일제는 1908년 8월 매국정부를 사촉하여 《칙령》 제62호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강제실시하였다. 이 시기 일제가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주요 법령의 제정발표는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놓았기때문에 《사립학교령》은 본질상 일제가 조작발표한것이나 다름없었다.

일제에 의하여 공포된 《사립학교령》의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의 설립은 학부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립학교의 교과서는 학부가 편찬한것이나 혹은 학부대신의 검정 또는 승인을 받은것만 사용하며 사립학교의 설비, 수업과 기타 부적당한것은 학부대신이 변경시킬수 있으며 법령 또는 학부대신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유해롭다고 인정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대신의 명령으로 폐쇄할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1909년 6월말현재 사립학교신청건수가 1 995건이었지만 설립승인을 받은 건수는 겨우 282건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1915년에 《사립학교령》을 개악한 《사립학교규칙》을 조작하고 사립학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개악된 《사립학교규칙》에는 사립학교를 세우려면 《총독》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했거나 《검정》을 받은것만 사용한다는것, 교원은 일본어를 완전히 소유하고 총독부가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될수 있고 이 《규칙》을 어기는 경우 조선《총독》이 학교를 폐쇄할수 있다는것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결국 조선인사립학교들이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존재할수 없으며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면 저들이 강요하는 교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을 법적으

로 공포한 파쑈적폭거였다.

일제의 악랄한 사립학교폐쇄책동으로 하여 1910년현재 전국적으로 2 100여개에 달하던 사립학교가 1914년에 와서 1 068개로, 1919년에는 749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조선인교육기관의 신설도 극력 제한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조선인교육기관의 신설제한책동으로 하여 1919년현재 전국적으로 조선인보통학교는 200여개로서 학령아동 100명당 1명의 취학률도 보장할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조선인보통학교수는 겨우 5개뿐이었다.

일제는 얼마 되지 않는 조선인학교들의 수업년한도 대폭 축소하였다.

당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반항을 막기 위하여 《조선인에게...교육을 주는것은 위험분자를...양성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소학교정도의 교육을 주면 충분하다.》라고 떠벌이면서 1906년 8월 27일 종래의 6년제《소학교령》을 폐지하고 4년제《보통학교령》으로 개악함으로써 소학교년한을 2년씩이나 잘라 학업년한을 대폭 줄이었다. 무단통치시기인 1911년 9월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조작공포하여 조선인보통학교는 4년제, 일본인소학교는 6년제로 규정하고 중등교육에서 조선인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일본인중학교는 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선학생들의 지식수준이 일본학생들보다 떨어지게 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시기 기만적인 제2차 《조선교육령》을 조작하고 식민지노예교육체제를 더욱 악랄하게 개악하였다.

일제는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조선의 교육체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한다.》는 미명밑에 종전의 민족적차별에 기초한 교육정책에서 그 어떤 《변경》이라도 가져올듯이 떠들면서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현대적교육체제에 기초하여 《새로운 문명을 주입》시키겠다고 떠들어대면서 《3면 1교》정책을 통하여 민족교육기관들을 말살하는데 더욱 광분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 3개 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한다는 《3면 1교》정책의 간판밑에 전국적으로 900개의 6년제보통학교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사립학교설립을 가로막았으며 겨우 존재명분을 유지하고있던 사립학교들마저 저들의 관립교육체제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말살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수와 서당수는 근 1/3로 줄어들었다.

이 모든것은 민족교육기관들을 철저히 폐쇄말살하여 민족교육의 흔적마저 깡그리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이였다.

조선강점시기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노예교육책동의 악랄성은 다음으로 교육내용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깡그리 말살하고 일본에 대한 숭배심을 로골적으로 고취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각급 학교들에서 조선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복종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조선력사교수를 금지시키거나 외국된 력사교육을 진행하여 찬란한 문화와 만년의 우수한 력사를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고등학교용 외국력사과목에서 《임진의 란》이라는 제목을 달고 《풍신수길(도요도미 히데요시)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침노하니...일본군사는 힘이 세고 무기가 좋아 그 형세가 심히 강한데 우리 나라 군사는 훈련이 부족하고 무기는 다 부러진 활과 녹슨

칼뿐이다. ... 이때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 일본군사의 총에 맞아 죽은자 그 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외곡된 역사를 붙여넣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민족허무주의와 패배주의사상을 주입시켰다. 또한 조선지도를 《토끼모양》으로 외곡하고 토끼와 같이 남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잡혀먹히기만 하는 연약한 《동물적속성》을 지닌것이 다름아닌 조선민족, 조선반도라는것을 식민지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민족허무주의와 열등감을 고취하였다.

일제는 보통학교 교과목편성에서 일본력사를 《국사》과목으로 새로 설정하고 종래 《외국사》에서 취급하던 3 000년을 잘라버린 조선력사를 그에 포함시켜 가르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조선이 옛날부터 일본의 지배밑에 있는것처럼 역사를 외곡날조하였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일본에 대한 사대와 교조의 역사로 외곡하여 교육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해보려는 흉악한 책동이였다.

특히 일제는 교육부문에서 조선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1911년에 조작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조선말과 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더욱 미쳐날뛰였다.

일제의 조선어교육말살책동은 단계별로 매우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통감통치시기에 《국어》과목을 《한문》과목과 통합하여 《조선어 및 한문》으로 만들었고 무단통치시기인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일본어》를 《국어》로 규정하였으며 《조선어 및 한문》에 비하여 일본어시간수를 대폭 늘이고 보통학교 4학년에서는 1주에 6시간이상 무조건 일본어를 교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22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각급 학교규정들에서 《국어는 정확한 사상을 발표하는 능력을 키우는것과 함께 국민다운 자각을 굳건히 하므로 어느 과목에 있어서나 국어를 숙달시키는것에 류의할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모든 조선인학교들에서 교수용어를 일본말로 할것을 강요하였으며 일본어교수시간을 대폭 늘이고 조선어교수시간을 현저히 줄이였다. 1920년대 그 비율은 6년제보통학교에서 64:20이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종래의 《조선어 및 한문》을 《조선어》라고 고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황국신민화》를 로골적으로 제창한 일제는 1938년 2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선포하면서 기본교과목에서 조선어과목을 제외시키고 《수의》과목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어과목을 완전히 없애버리였다. 《총독》 미나미는 《국어(일본어)는 국민의 사상정신과 떼여놓을수 없는것이다. 반도인의 진정한 황민화는 국어를 상용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국어의 회화는 물론 쓰기, 표현능력을 훨씬 높여 황국신민된 자각을 확고히》하도록 할것을 강요하였으며 1940년대초 4년제소학교과정안에서 《국어》시간수는 총시간수의 90%, 6년제소학교에서는 35%를 배당하였다.

이 모든 책동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언어를 말살하기 위한 가장 악랄한 책동이였다.

일제는 교육내용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깡그리 말살하는것과 함께 왜왕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심을 가지도록 하는 반동적인 과목들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켰다.

일제는 1905년에 조작한 《한국교육개량안》에서 《일본제국의 대한정책에 따라 장래 한국이 제국의 보호국으로서...적당한 교육을 실시하는것을 취지로 한다.》고 규정(제1항)

하고 이에 따라 교육에서 조선청소년들에게 왜왕에 대한 숭배사상을 심어주며 《미성》교육을 통하여 노예굴종사상을 주입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1932년 4월부터 조선학교들에서 《수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내오고 일본인 교원이나 교장이 직접 담당하였다. 일제는 이 과목에서 왜왕숭배와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복종의 마음을 키우도록 하는것을 주되는 목표로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938-1940년에 발행된 초등, 중등학교의 《수신》교과서에는 《천황의 집》, 《천황의 군대》, 《황국》, 《충효는 하나》, 《우리는 어진 인민》 등의 제목을 설정하고 그림과 내용을 안받침하여 학생들에게 왜왕국가에 대한 《존엄》과 무조건적인 복종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일제는 학생들의 일과생활까지도 《일본정신배양》의 요구에 맞게 조직하였는데 매일 아침 모임시간에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여놓고 《궁성요배》와 일장기계양식과 함께 왜왕의 《교육칙어》와 《황국신민의 서사》를 왜말로 집체적으로 랑독시키면서 《충군애국》과 《충효일본》사상을 조선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켰다.

조선강점시기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노예교육책동의 악랄성은 다음으로 조선청소년들을 순수 저들의 전쟁수행에 복무하는 대포밥으로, 노예로 만들기 위한 침략적목적을 추구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1930년대이후부터 《황국신민화》교육을 통하여 조선청소년들을 저들이 벌리는 침략전쟁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였다.

일제는 이 시기 《황국신민화》를 위한 《교육3대방침》을 제정하고 조선청년들이 왜왕의 절대적권력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일본에 무조건 복종하며 침략전쟁에 복무할 강한 육체와 의지를 키울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2년제《간이학교》들을 설립하고 대륙침략정책에 필요한 값죽은 로력자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속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업속성교육은 1930년대초부터 실시되어 중일전쟁도발이후 더욱 강화되였다. 직업속성교육체계는 농업실습학교와 간이학교교육으로 구성되였다. 이 교육체계의 특징은 일반기초지식교육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단순한 로동도구, 기형아로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되였다는데 있다.

일제는 《실용간이교육의 기본은 학문의 리치가 아니라 간단한 생활적재간》이라고 규정하고 교수시간의 절대부분을 《목공기술습득》, 《토공기술습득》, 《농산물재배법》 등과 같은 과목아닌 과목교수에 배당하였다.

그리고 《리치를 캐는자를 대체로 적게 하고 농업 등 실업에 종사하는자를 육성하는것이 실용교육이다.》라고 떠벌이면서 《실용교육》을 저들의 《교육리념》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일본말, 산수, 토목기술 등 극히 초보적인 교육을 주어 그들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전쟁대포밥으로 효과있게 써먹기 위한 책동이였다.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책동은 침략전쟁의 대포밥을 길러내기 위한 식민지군사교육에서 더욱더 뚜렷이 나타났다.

일제는 1930년대초부터 학교들에 군사교관(배속장교)을 배치하고 군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일전쟁도발이후에는 전시군사교육체계으로 이행하였다.

군사교육체계는 중등 및 고등학교들에서의 《교련》과 《청년훈련소》, 《청년특별련성소》를 거점으로 한 군사교육으로 구성되였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교련》과목은 《사격》, 《지휘법》, 《각개 및 부대교련》, 《기발신호》,

《측지》, 《군사강독》 등이었다. 초기에는 교내에서의 《교련》을 위주로 하였으며 그후 10여 일간의 《야외련습》을 포함하였다.

《청년훈련소》에서는 《총독부》가 《학비》까지 지출하면서 6년제보통학교졸업생으로서 사회에 진출한 16살정도의 청년들을 끌어들이어 징병후비양성을 위한 예비훈련을 진행하였다. 학제는 보통과 2년, 본과 2년(혹은 연구과 1년)이었으며 4년간의 교과목시간수를 보면 수신, 공민과 100시간, 교련 400시간, 보통과 200시간, 직업 300시간이었다. 이것은 총 1 000시간중 교련과 직업교육시간이 700시간으로서 이 《훈련소》에서는 군사교육이 위주이고 직업교육이 동반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청년특별련성소》의 교육체계는 일제가 1942년 12월부터 미취학자청년들을 《징병》으로 끌여가기 위해 설치한 교육의 형태였다. 미혼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녀성청년특별련성소》교육도 실시하였다. 교과목은 《천황》숭배를 고취하는 《훈육》과 《학파》, 군사교육과 고된 로동을 동반한 《교련 및 근로작업》뿐이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후부터 군사교육을 국민학교(보통학교)에까지 확대하여 소학교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군사훈련을 통하여 조선청년들에게 침략적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면서 일본《천황》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것을 강요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길들이었다.

일제는 1938년이후부터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군복형식의 복장과 전투모를 쓰고 배낭을 지며 각반을 치고 다니게 하였으며 학교안에 파쑈적군사규률을 세웠다. 그리하여 학교들은 《배속장교》의 통제밑에 있는 하나의 병영으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군사교육은 결국 조선의 청년학생들을 자기 민족과 조국이 아니라 일본《천황》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수 있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일제는 이처럼 교육을 군사화한데 기초하여 《지원병》, 《학도병》, 《징병》으로 조선학생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고가 죽음에로 내몰았다.

력사적사실은 일제야말로 조선을 강점한 기간 식민지노예교육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민족적인 모든것을 빼앗음으로써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썩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